

Trust me, It's Daejeon

DAEJEON MEDICAL TOURISM

INTERVIEW WITH

독창적이고
우수한 한의학의
세계화



MEDICAL TECHNOLOGY

코로나로 스포트라이트 받은
대덕특구, 그곳은 어디?



CITY & CULTURE

로봇이 만들고 서빙까지 다한다.
직원 없는 24시간 카페



FOOD & TRAVEL

수제비, 한그릇을 담다



몸과 마음의 휴식공간 대청호



HEALTH & WELLNESS TIPS

코로나19 고위험군
당뇨에 대한 오해와 진실



HOT ISSUE

대전의료관광
핫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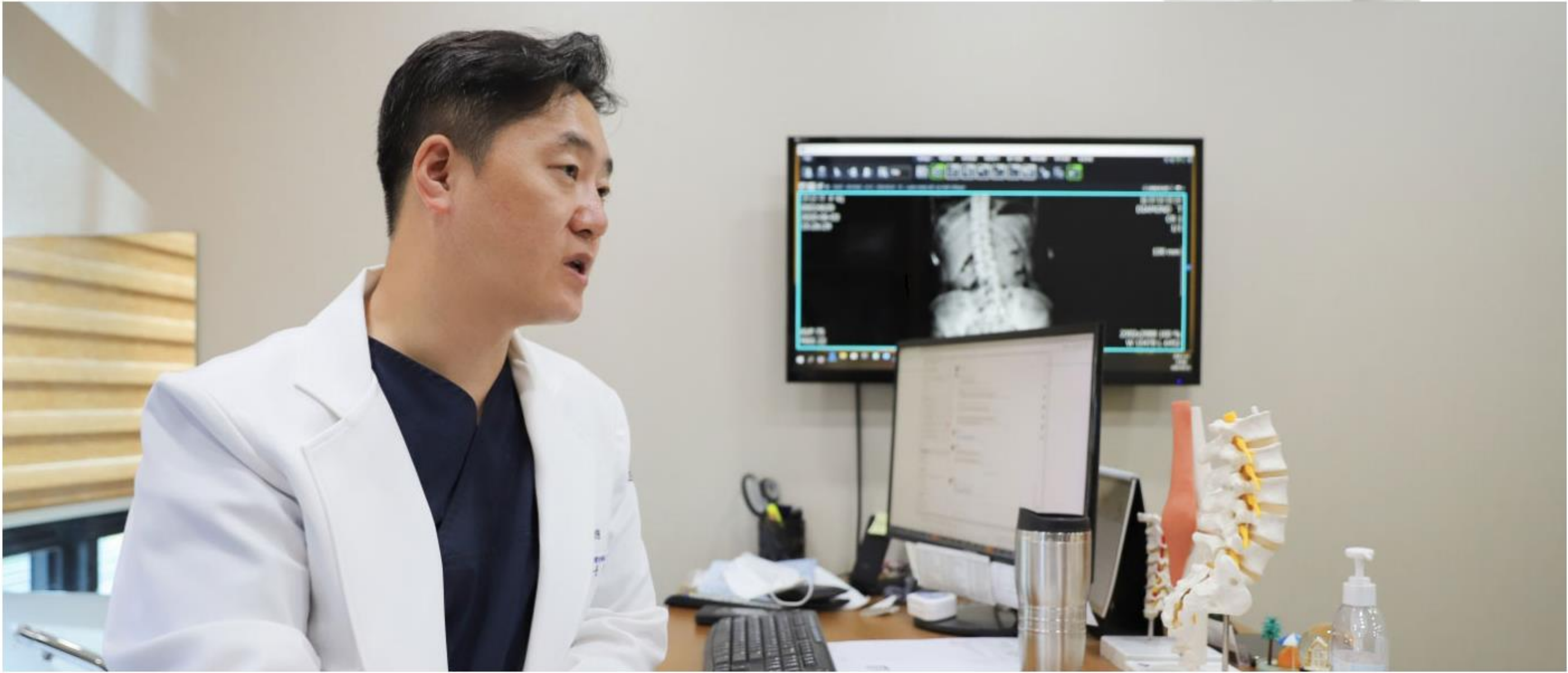


대전의료관광 뉴스레터 인터뷰 - 1

독창적이고 우수한 한의학의 세계화!

"해외에서 'Korean Medicine'으로 점차 인정받고 있는 독창적이고 우수한 한의학의 세계화!"

한국의료 수준이 높아지고 정부의 의료관광 육성 지원사업 확대로 의료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K방역과 선진 의료 체계로 한국의 병원시스템이 그 어느 때보다 국제 사회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한방의 세계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대전 필 한방병원 윤제필 병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Q1. 원장님 그간 한방의 세계화를 위해 추진하셨던 주요 활동,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어요?

에티오피아에서 3년간 국제협력한의사로 근무한 후 귀국해 자생한방병원에서 2007년부터 전문의로 본격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맡은 직책은 국제진료센터장으로 외국생활의 경험을 살려 1년간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준비하면서 든 가장 큰 고민은 '어떠한 성공모델을 만드느냐'였어요. 국내에서 한방병원급이 미국에 진출하는 것은 자생병원 이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미국 현지인, 그중 중산층이상 고객을 타겟으로 잡고, 미국의 의료법과 노동법이 한국과 너무 달라 진료시스템을 새로 만들고, 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고민을 했습니다. 기본검사를 위해 X-레이 필요성을 느껴 척추교정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미국의 카이로프랙터(Chiropractor, 일종의 미국내 한의사)와 협진도 추진하면서 미국에 첫발을 디디고 2009년 미국 플러툼시에 자생병원플러툼분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Q2. 원장님께서 한의사해외의료봉사단(KOMSTA)으로 해외의료봉사를 추진하시고 계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자생한방병원 전문 수련의 1년차 때 KOMSTA(한의사해외의료봉사단)를 통한 해외 첫 의료봉사로 스리랑카에서 의료봉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것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타국에 대한 낯설음도 잠시, 끝없이 밀려오는 환자들로 인해 4월이라는 의료봉사 기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보냈어요. 계속 치료하면 더 좋아질 것 같은 환자들을 뒤로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는데 너무 아쉬웠죠. 그때 국내보다는 해외에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느낀 계기가 되어 한방의 세계화라는 꿈도 본격적으로 꾸기 시작했습니다.

Q3.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방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방의 세계화, 대중화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올해 의료관광객 유치 마케팅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해외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작년에 대전시, 공사와 함께 두바이, 몽골 등 현지의료설명회에 참가하여 의료기관과 에이전시와의 미팅을 통해 올해 본격적으로 해외네트워크를 강화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홍보에 치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전마케팅공사의 지원을 통해 홈페이지로 유입된 외국인 환자를 병원에 내원 할 수 있도록 현재 병원 웹사이트도 새롭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Q4. 양방에 비해 한방이 지니는 차별화된 경쟁력은 무엇인지, 양방과 한방의 접목치료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병원 특유의 비수술 치료는 양방의학의 수술 치료보다 재발률이 낮고 비용도 저렴한 것이 가장 큰 강점"이죠. 하지만 양방의학과 한의학중 무엇이 우수한지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방의학의 진단 설비를 이용해서 환자의 통증에 대해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고 한방을 통해 환자들에게 맞춤식 치료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Q5. 외국인 환자들은 보통 어떤 질병으로 한방병원을 찾아옵니까?

척추디스크, 척추관협착증, 퇴행성 관절질환 등의 치료 목적으로 방문하고 계십니다. 또한, 한방과 양방의 협진을 통해 체계적인 통합면역치료를 제공합니다. 환자의 자가 면역력을 증진 및 강화시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저하된 체력과 기력을 회복시키며, 나아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Q6. 의료관광객 유치에서 치료까지 병원에서 제공하는 토털서비스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병원 의료진 모두는 영어진료가 가능하고 전문 영양사를 보유하여 입원치료시 환자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빗한 세미호텔식 입원실을 보유하고 있어 의료관광객이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고 관내 가까운 거리는 셔틀 버스를 제공하고 있어 쇼핑, 관광도 즐기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Q7. 마지막 질문입니다. 병원의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년에는 우리병원이 인턴수련교육기관인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어 인턴의와 전문의등 의료진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전문의로 구성된 한방병원 설립의 롤모델로 필한방병원 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프랜차이즈 병원 설립도 계획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담갖지 않고 과학화 된 한의학 치료를 더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와 병원 의료진의 바램입니다.

Other Article



MEDICAL TECHNOLOGY

코로나로 스포트라이트 받은
대덕특구, 그곳은 어디?



CITY & CULTURE

로봇이 만들고 서빙까지 다한다.
직원 없는 24시간 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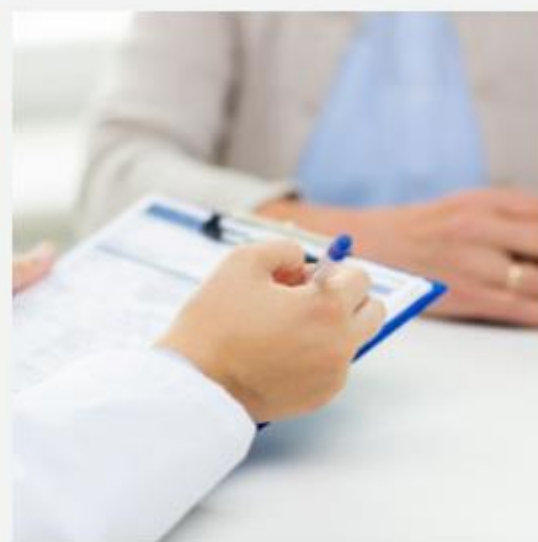
FOOD & TRAVEL

수제비, 한그릇을 담다
몸과 마음의 휴식공간 대청호



HEALTH & WELLNESS TIPS

코로나19 고위험군
당뇨에 대한 오해와 진실



HOT ISSUE

대전의료관광
핫 이슈

코로나로 스포트라이트 받은 대덕특구, 그곳은 어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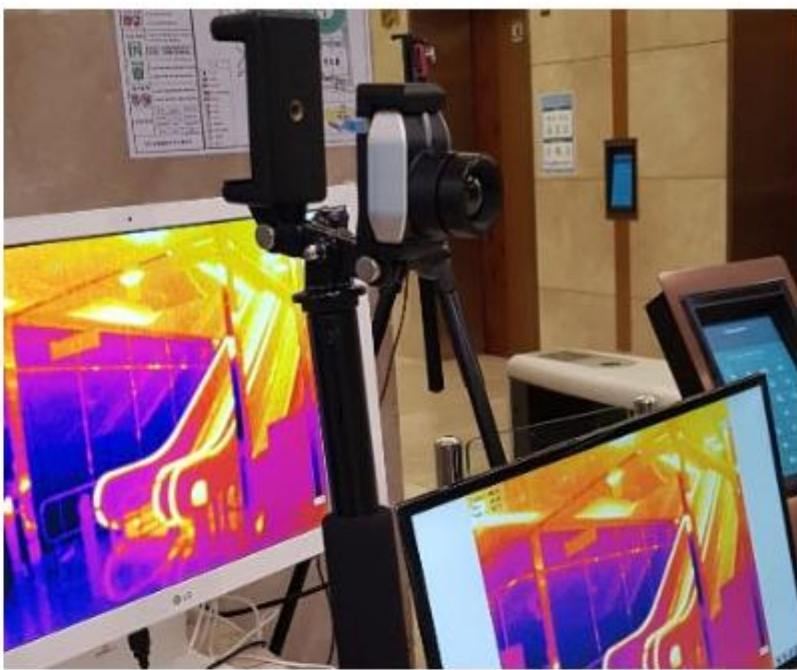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대처를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해외 평가가 잇따르면서
K 방역 관련 제품도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사이언스', '방역 한류' 바람까지 일고 있는데, 이 현상을 국내 과학기술의 중심지 대전
광역시에 위치한 '대덕연구단지' 업체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 대덕특구에 본사를 둔 의학 진단 전문 기업, Sugentech은 3월 중순, 10분 만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진단 키트를 개발해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불과 한 달여 만에 수출하
는 국가가 50여 곳으로 늘었고, 최근에는 스페인과 브라질, 러시아, 모로코 등 4개국에 300억 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Sugentech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독립해 설립한 대덕특구 벤처기업으로 여러 출연연구 기관에서 기술을 이전 받아 진단 키트 분야의 경쟁력을 키웠
습니다.



K-사이언스, 방역한류를 이끄는 건 의학 분야뿐 만이 아닙니다, 1992년 카이스트 졸업생들이 대덕 특구에 동자를 터
만든 국방과학 전문 기술업체, 아이쓰리시스템(i3system)!

아이쓰리시스템이 국방과학기술연구소에서 기술이전을 받아 만든 적외선 센서칩과 센서가 들어간 열화상 카메라가
최근 소위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의 열을 재야하는 기차역이나 공항, 관공서 등에서 구입문의가 폭
증했고 이 달 들어선 스웨덴과 미국, 중국 등 해외에서 구입 문의가 크게 늘어나 매출이 무려 10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코로나19 확산세를 완화할 수 있었던 배경엔 신속한 진단이 주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소벤
처기업부가 지난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2월 기준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있는 한국 업체는 총 24곳입
니다. 24곳중에서 공장을 지역에 두고 투자나 수출상담이 용이한 서울에 본사를 둔 업체들을 제외하곤, 대전에 상주하
고 있는 업체가 가장 많습니다. 진단키트 분야 뿐만 아니라, 열화상카메라, KF인증 마스크와 같이 코로나19 방역활동
에 필수적인 물품제작 업체들도 대전에 몰려 있습니다.

대전시가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 설 수 있던 이유.

산업계와 학계, 연구 기관 즉 산학연이 밀집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카이스트, 충남대 등 인근에 우수한 대학교가 몰려있어 정기적으로 우수한 인력 공급이 가능
하고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대기업 연구소들이 밀집하고 있어 기술 개발 및 인근 민간업체들에
게 기술이전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시와 대덕특구는 포스트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대덕특구 산학연 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다른 바이러스 출현에 대응할 틀을 갖추기
위해 논의를 진행중입니다. 스페인 독감, 신종 플루, 메르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와 같이
전세계에 전염병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속에 찾아 온 기회!

코로나 19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진단키트 및 열화상 카메라 수출 활성화를 토대
로 대전이 과학도시로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Other Article



INTERVIEW WITH

독창적이고
우수한 한의학의 세계화



CITY & CULTURE

로봇이 만들고 서빙까지 다한다.
직원 없는 24시간 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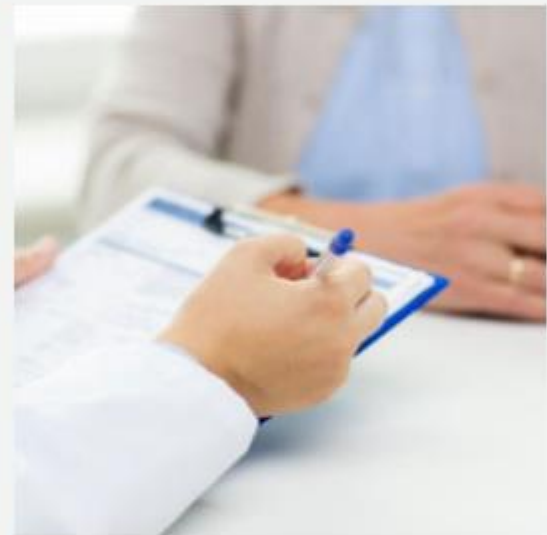
FOOD & TRAVEL

수제비, 한그릇을 담다
몸과 마음의 휴식공간 대청호



HEALTH & WELLNESS TIPS

코로나19 고위험군
당뇨에 대한 오해와 진실



HOT ISS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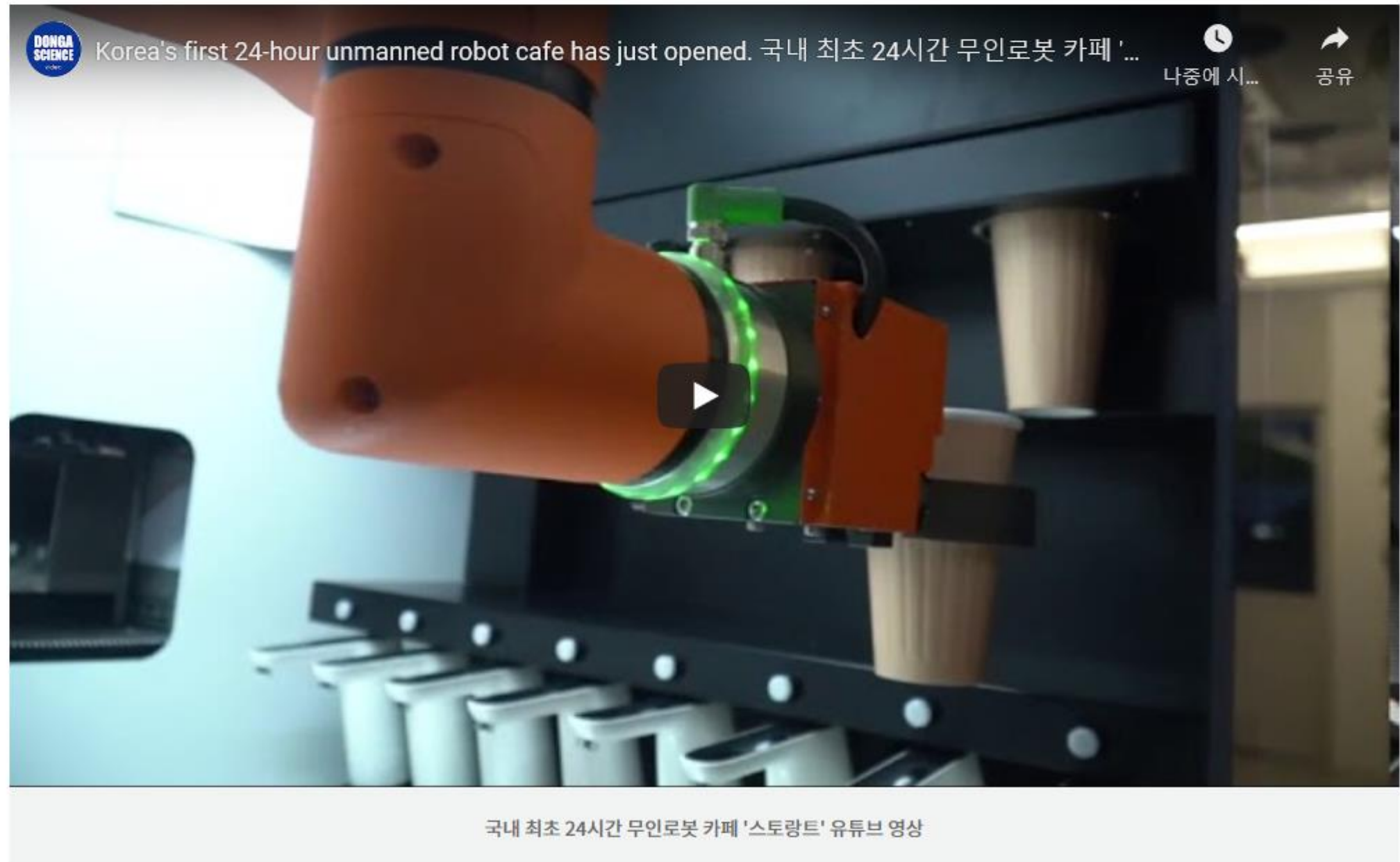
대전의료관광
핫 이슈

로봇이 만들고 서빙까지 다한다. 직원 없는 24시간 카페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카페. 무인 단말기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자 검은색 바리스타 부스 안에서 사람 대신 로봇팔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로봇팔이 컵을 꺼내 기계 위에 올려놓고 완성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들어 올리기까지는 1분30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서빙 로봇이 부스 앞으로 이동해 커피가 완성되길 기다렸습니다. 음료를 운반하는 선반에 커피가 올려지고, 서빙 로봇이 “뜨거운 음료를 배송 중입니다”라고 말하며 미끄러지듯 주문자의 좌석을 찾아 이동했습니다.



국내 최초 24시간 무인로봇 카페 '스토랑트' 유튜브 영상

주문자가 선반 위 커피를 집어들자 서빙 로봇이 “뜨거운 아메리카노입니다”라며 음료의 종류를 안내했습니다. 서빙 로봇은 한 번에 4잔까지 음료를 운반할 수 있고, 식별 기능을 이용해 주문한 음료를 음성으로 안내합니다. 주문량이 많으면 여러 대의 로봇이 함께 움직여 서빙을 한다. 330㎡ 정도 크기의 이 카페 안에서는 3대의 로봇이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문된 음료를 모두 운반한 후에는 로봇이 자동으로 벽면에 설치된 ‘도킹시스템’으로 이동해 충전을 하며 다음 주문을 기다렸습니다.

2020년 5월15일 무인 로봇카페 '스토랑트'가 이날 공식 오픈했습니다. 스토랑트라는 이름 자체도 스마트한 자동화 카페(Smart Automatic Restaurant)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카페는 앞으로 24시간 동안 무인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스토랑트는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있는 반도체 기업 '비전세미콘'이 3년 넘게 기술개발해 만들어낸 집념의 결과물입니다.



스토랑트 관계자는 “7년 전 스마트팩토리 비즈니스에 착수해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3년 전부터 무인 로봇카페를 선택하게 됐다”면서 “7년간 축적한 기술을 적용해 전 세계 최초로 24시간 무인 로봇카페를 대전에 처음 도입하게 됐다” 그리고 “프로그램화된 레시피에 따라 50여종의 음료를 만들 수 있는 스마트 바리스타 시스템과 서빙 로봇, 무인 단말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 완전한 자동화 카페를 선보이게 됐다”며 “언택트 시대에 가장 적합한 외식 사업 형태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비전세미콘은 올해 11월 말까지 전국에 스토랑트 카페 10개 오픈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매장 수를 점진적으로 늘려 총 30개 매장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Other Article



INTERVIEW WITH

독창적이고
우수한 한의학의 세계화



MEDICAL TECHNOLOGY

코로나로 스포트라이트 받은
대덕특구, 그곳은 어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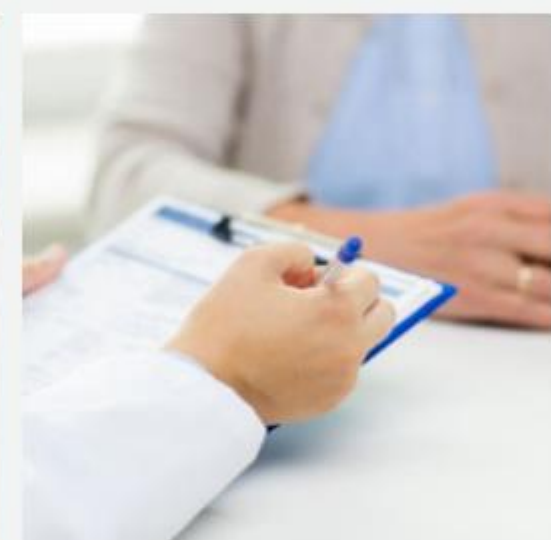
FOOD & TRAVEL

수제비, 한그릇을 담다
몸과 마음의 휴식공간 대청호



HEALTH & WELLNESS T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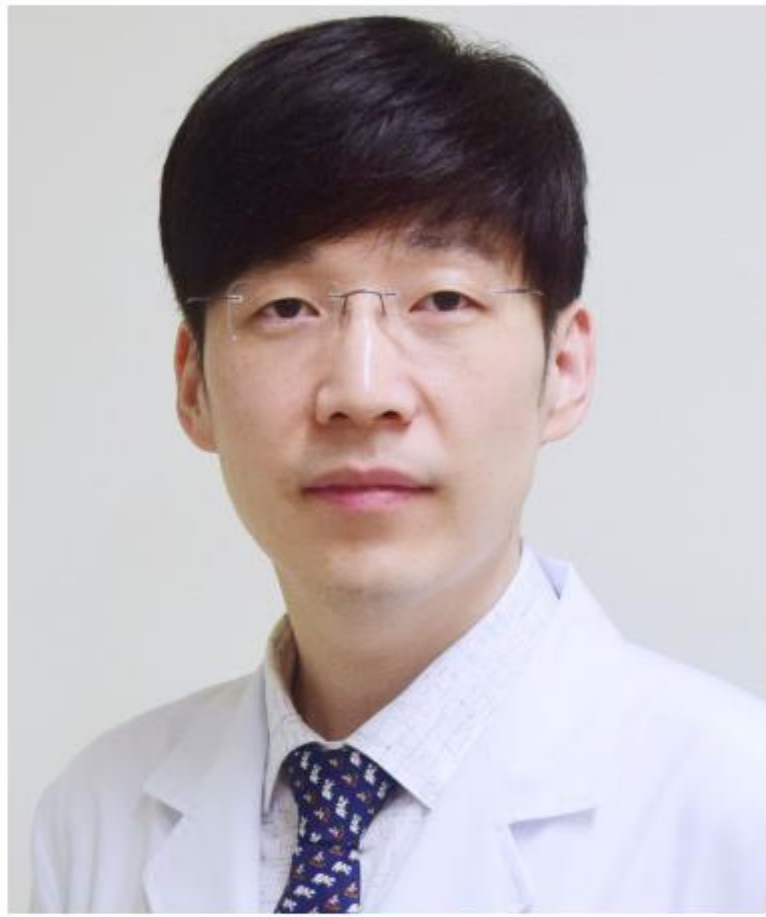
코로나19 고위험군
당뇨에 대한 오해와 진실



HOT ISSUE

대전의료관광
핫 이슈





코로나19 고위험군 “당뇨”에 대한 오해와 진실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홍준화 교수

코로나19 사망자와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는 말은 다름 아닌 '기저질환'일 것입니다. 사망자 대다수가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한 명당 평균 3개의 질환이 있었는데 3명 중 2명은 고혈압, 절반은 당뇨를 앓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덕분에 당뇨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혈압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혈압측정기가 많이 구비되어 있고 140/90 이상이라는 수치화된 기준도 있으나, 당뇨의 경우 혈액이나 소변검사를 통해서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당뇨라 하면 '설탕'부터 떠올리며, 무작정 단 것을 많이 먹어 생긴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홍준화 교수의 도움말로 '당뇨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Q1. 당뇨는 단 것을 많이 먹어서 생긴다?

흔히 설탕이나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당뇨가 생기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으나, 단 음식이 당뇨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사람이 생명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 중 가장 중요한 연료역할을 하는 것이 포도당, 즉 혈당입니다. 음식물로부터 흡수한 포도당은 혈액을 타고 이동해 생명에 필요한 근육, 지방, 뇌 등 중요한 장기로 보내지는데 이때 중요한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이 인슐린작용이 감소하거나 부족하면 당뇨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혈당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 꼭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필요한 만큼 적당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당뇨 관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뇨의 치료는 혈당조절을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Q2. 당뇨는 유전된다?

부모에게 당뇨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자식에게도 당뇨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당뇨이면 자녀에게 당뇨가 생길 확률은 15%, 양친이 모두 당뇨라면 확률은 30% 정도입니다. 즉, 유전적인 성향은 있으나 피부색깔처럼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병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 중에 당뇨환자가 있다면 건강관리에 남보다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Q3. 마른 사람은 당뇨에 안 걸린다?

비만이 당뇨의 중요한 원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룬 아시아 국가에서는 비만여부와 관계없이 서구화된 식습관과 영양분의 과잉으로 인해 당뇨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은 서구인에 비해 더 적은 인슐린 분비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영양분의 과잉상태를 이겨내지 못해 당뇨가 더 빨리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Q4. 당뇨환자는 잡곡밥만 먹어야한다?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는 쌀밥이나 보리밥이나 뱃속에서 소화되고 나면 열량과 작용에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혼식은 과식을 줄이고 여러 섬유질과 약간의 비타민이 조금 더 들어있어 백미보다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보리밥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맛있는 보리밥을 마지못해 먹는 것보다는 쌀밥을 맛있게 지어 적당한 먹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Q5. 설탕은 절대 금물이다?

당뇨환자는 절대 설탕이나 당분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설탕과 당분은 혈당치를 높이는 하지만 그렇다고 먹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 식단 내에서 당분의 양을 조절하면 안전하게 설탕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당뇨환자에게 절대적으로 제한해야하는 음식은 지방이 많이 들어간 갈비, 삼겹살, 소시지 등입니다. 이것들은 적은 양에 비해 높은 열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Q6.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병원에 다닐 필요가 없다?

집에서 자가 혈당측정기로 혈당을 측정하면 병원에 가서 혈당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가 혈당측정기로 측정한 혈당치는 실제보다 낮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혈당검사를 받아 자가 혈당측정 결과가 정확한지 정기적으로 비교해 봐야 하며, 혈당조절이 잘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당화혈색소도 측정해 봐야 합니다.

Q7. 당뇨 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못 끊는다?

한 번 약을 먹으면 약을 끊을 수 없고, 약이 독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치료약을 한사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약을 복용하면 정말 끊을 수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만 제대로 받으면 약을 끊어도 정상 혈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약 부작용이 1이라면, 혈당 조절로 얻는 이득은 10이라는걸 명심해야 합니다.

Q8. 당뇨 환자는 운동을 하면 안 된다?

운동은 혈당을 조절해주고 합병증 위험을 낮추며 체중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만, 당뇨환자가 무작정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저혈당 등의 위험요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의 종류나 강도, 횟수는 전문의의 소견 및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Other Article



INTERVIEW WITH

독창적이고
우수한 한의학의 세계화



MEDICAL TECHNOLOGY

코로나로 스포트라이트 받은
대덕특구, 그곳은 어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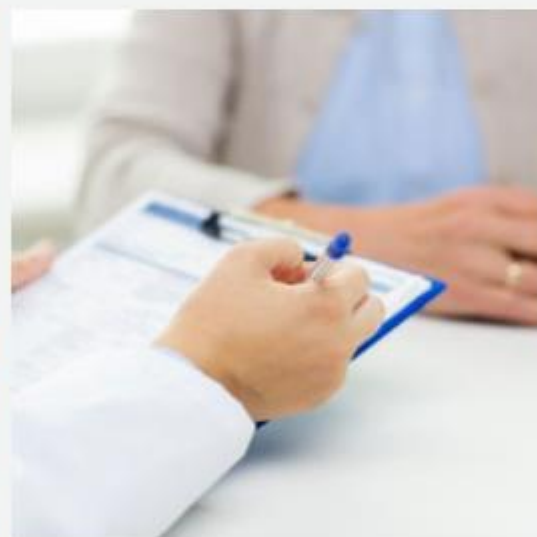
CITY & CULTURE

로봇이 만들고 서빙까지 다한다.
직원 없는 24시간 카페



FOOD & TRAVEL

수제비, 한그릇을 담다
몸과 마음의 휴식공간 대청호



HOT ISSUE

대전의료관광
핫 이슈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장기화 되고 있어 의료관광객 유치에 위한 해외설명회 등이 취소되는 등 해외홍보마케팅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나 대전의료 관광은 포스트 코로나대비 주요 타깃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온라인홍보마케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대전을 의료관광 목적지로 방문한 의료관광객 데이터 심층 분석, 웹 로그, 마켓 트렌드, 유입 및 관심 키워드 등의 분석을 통해 의료관광객의 관심진료 및 잠재 고객 유치를 위한 타깃 시장 온라인 마케팅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첫째, 대전을 찾는 의료관광객의 주 관심 진료과목인 피부, 성형, 한방, 정형, 건강검진과 웰니스관광자원을 결합한 의료관광상품을 기획하고 이를 유튜브로 홍보하기 위해 '의사에게 직접 들어보는 의학정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Medical Tip', '나만의 특별한 웰니스 관광지'를 담은 콘텐츠를 시리즈로 제작하고 영어, 러시아어,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타깃 시장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둘째, 포스트코로나 대비 한국관광공사 몽골 울란바토르지사와 함께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사이버의료관광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몽골 현지 여행사, 에이 전시 15곳과 병원 5곳이 참여하고 한국 대전마케팅공사와 관내 의료기관 6곳(대청병원, 선병원, 바른생각병원, 필한방병원, 김벨병원, 페이스성형외과) 참여하여 진행된 '사이버의료관광상담회'는 공사의 의료 관광 홍보 PT에 이어 대전 의료기관별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KTO 몽골지사의 페이스북 이벤트를 통해 모집된 몽골 의료관광 실수요자와 대전의료기관간의 B2C상담도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대전마케팅공사는 대전의료관광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해 타깃시장 공략을 위한 의료관광 홍보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Other Article



INTERVIEW WITH

독창적이고
우수한 한의학의 세계화



MEDICAL TECHNOLOGY

코로나로 스포트라이트 받은
대덕특구, 그곳은 어디?



CITY & CULTURE

로봇이 만들고 서빙까지 다한다.
직원 없는 24시간 카페



FOOD & TRAVEL

수제비, 한그릇을 담다
몸과 마음의 휴식공간 대청호



HEALTH & WELLNESS TIPS

코로나19 고위험군
당뇨에 대한 오해와 진실

